

행복을 드립니다, 예술의 거리 '아트경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지역민들 문화 향유 기회 1만~10만원 수준... 싸고 재밌어 시민들에 인기

“만원, 만원부터 출발합니다!” 김창옥(57) 전문경매사가 외침이 끝나기도 전 경매장 입찰석 맨 앞에 앉은 한 남성이 손을 번쩍 들고 외쳤다. “만원!”

“네, 만원 나왔습니다. 2만 원 나왔습니까?” 경매사가 낙찰을 알리려고 망치를 손에 쥔 순간 두 번째 좌석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네, 2만 원 나왔습니다.” 갑작스런 입찰경쟁이 벌어지자 경매사가 다시 호가를 불렀다. “3만원 나왔습니까?” 노신사가 또다시 손을 들어올렸다. 경매사가 망치를 때렸다. “한 분이 두 번 손을 들었기 때문에 2만 원에 낙찰하겠습니다.” 땅, 땅, 땅!

17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진행된 '아트경매'를 통해 10번호 24번인 '나전 재떨이'를 2만 원에 낙찰받은 노신사는 경매 시작 전부터 전시장에 진열된 이 재떨이를 이리 저리 살펴보고 관심을 표시하던 이었다. 이날 경매에 참여한 70여 명 가운데 상당수는 경매시작 30여 분전부터 경매장을 찾아 출품된 작품들을 둘러보며 마음에 드는 걸건을 '찜해

문' 상태였다. 이날 출품된 150여 개의 작품들은 동양화와 서양화를 비롯해 각종 고서화와 골동품, 공예품, 민예품들로, 모두 52개의 작품이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아갔다. 낙찰총액은 1043만원이었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아트경매'는 '예술의 거리 활성화'라는 목표를 걸맞게, 작품을 비싸게 거래하는 것보다는 지역민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이벤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출품작들은 대부분 경매시작가가 1만~10만 원 수준으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부담없이 응찰할 수 있는 가격대였다.

실새없이 작품을 선보이는 경매사도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쓰는 눈치였다. 지역민 위주로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 비싸게 거래될 만한 '좋은 작품'이 경매에 나오더라도 상당히 저렴하게 낙찰가가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날 경매에서 국보급 청자를 재현한 '도자기 작품'을 아무런 경쟁 없이 시작가인 10만 원에 팔아 안은 한상신(52)·안순정(48·두암동)부



지난 17일 오후 광주시 동구 '무등 갤러리'에서 열린 '예술의 거리 토요일 아트경매'에서 경매사가 작품을 들어보이며 응찰을 유도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부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입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우리 전통문화재를 재현한 이 작품을 보면서 한동안은 행복할 것 같다”며 밝게 웃었다.

아프리카 작가의 작품을 구입한 김모씨(47·주월동)도 “위낙 마음에 들고 또 좋은 작품이라 경매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행히 시작가가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며 “치열한 경쟁이라기보다는 이웃들이 모여 즐기는 놀이 같은 분위기가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23회째 열린 이번 '아트경매'에는 노희용 동구정장

도 참여, 작품을 낙찰받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아트경매 행사를 주최하는 광주시에 따르면, 매월 경매 때마다 평균 150점 정도 작품이 나오고 이 가운데 40% 정도가 낙찰된다. 한 차례 경매에서 평균 매출액은 500만원 수준이며, 젊은 층들에게는 골동품과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장년·노년층에게는 회화가 인기 품목이다.

노희용 동구정장은 “마음에 드는 예술작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번 아트경매 행사가 더욱 발전해 지역민들이

문화수도 광주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물론 도심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트경매 행사를 운영하는 무등마루 유재명 팀장은 “매번 경매 때마다 200여 명이 일출에 참여하지만 여름 더위를 피해 1주일가량 일찍 실내에서 진행된 이번 경매에는 참여가 조금 저조한 것 같다”며 “지역민들이 예술작품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최악의 폭염'

가축 118만마리 폐사

전남·북 57만마리 피해

기록적인 불볕더위로 올 여름 폐사한 가축 수가 118만 마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지난 16일까지 전국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수는 118만2476마리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은 지난 6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에서 106만2218마리의 가축이 폐사했다고 밝혔다. 피해 농가에 보상해야 할 금액은 35억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폭염'을

추가했다. 지난해 NH농협은행의 가축재해보험 폭염 특약에 가입된 폐사한 가축 수는 39만5688마리,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된 보험금은 18억여원에 달했다. 올해는 피해가 2~3배로 커진 셈이다.

올 여름 폭염의 최대 피해 가축은 더위에 약한 '닭'이다. 현재까지 폐사한 가축은 닭(105만568마리), 오리(13만779마리), 돼지(1128마리), 소(1마리)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전북과 전남 지역의 피해가 컸다. 전북(38만9000마리)이 피해 두수가 가장 많았고, 전남(28만4000마리), 충남(16만4000마리), 경북(11만마리), 울산·부산·경남(4만마리), 서울·인천·경기(3만5000마리)가 그 뒤를 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연일 전력경보'

냉방수요 안 떨어져

지난주 사상 최악의 전력위기를 넘겼지만 전력수급경보가 연일 내려지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19일 오전 11시 5분 순간 예비전력이 450만kW 이하로 떨어져 전력수급경보 1단계 '준비'(예비력 400만~500만kW)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경보 준비 단계는 지난주부터 공휴일인 15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매일 빠짐없이 발령됐다. 지난주 최대 전력난이 예고됐던 12~14일에도 사흘 연속 준비 단계 경보가 내려졌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주 초 중부지방에 비가 오면서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력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요가 거의 줄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난주 월요일보다 수요량이 더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전력수요(수급관리 이후 기준)는 지난주 7200만~7300만kW 선을 유지했는데, 이날은 7400만kW대까지 올라갔다.

예비력은 오전 11시 30분 388만kW까지 떨어졌다. 전력당국은 이날 대응량소비가 의무 절전규제(220만kW), 산업체 조업조정(120만kW), 전압조정(73만kW) 등의 비상수급대책을 시행했다.

전력당국은 그러나 이번 주에도 여전히 수급상황이 빠듯한 상태여서 산업계와 국민의 절전 동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한국어 수능 필수과목' 서명운동 10만명 돌파

광주 비터 재외동포들도 참여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한국 홍보 연방 동아리 '생존 경쟁'팀이 펼치는 한국어 대입 수험 능력시험 필수과목 선정 촉구 서명운동이 10만 명을 돌파했다.

서 교수는 “지난 6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배우 송일규를 시작으로 불을 붙인 서명은 78일 만인 19일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10만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명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

민 10만 명이 원하는 만큼 한국사가 반드시 필수과목으로 채택돼 청소년들의 역사 교육에 올바른 지침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수능 필수과목 지정에 관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예정이다.

서명에는 광주·부산·대전·울산 등 광역자치단체와 시민, 독도·거제도 등 비무한 섬 지역 주민은 물론 교포(일본·무단장(杜丹江)·상하이(이상중국)·방콕(태국)·파리(프랑스)·LA·뉴욕(이상 미국) 등지의 재외동포들도 참여했다. /연합뉴스

새누리 재해대책위, 영산강 녹조현장 방문

승촌보·죽산보 점검... 피해상황 청취 대책 마련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회(위원장 안효대) 소속 위원들이 20일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영산강 수계 승촌보와 죽산보를 찾아 조류발생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안효대 위원장을 비롯한 김중훈·함진규·염동열 의원, 전희재 부위원장, 이정재 광주시당 위원장, 송환기 재해대책위원, 전광진 재해대책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효대 위원장은 오전 승촌보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녹조 피해 현황을 보

고받은 뒤 직접 영산강 조류 발생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승촌보와 죽산보를 둘러보고 인근 농민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청취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회는 19일 “녹조문제로 영산강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영산강 수계인 승촌보와 죽산보를 방문해 조류 발생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하천수질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해대책위원회는 “연일 폭염으로

인해 남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녹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면서 “현장을 점검한 뒤 영산강 수계 녹조 저감대책 마련 등을 주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산강은 녹조가 급격히 증식하면서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이 하천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당분간 녹조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녹조저감대책이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지난 15년간 9,000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 성공전략!! 부동산 실전경매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마케팅전문)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 방송국 특강,
KBC-TV 아침마당 출연강의 등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세미나토론자 참여

13년 9월~12월 선착순 70명 마감

| | |
|-----|----------------------------|
| 장소 | 교육대 평생교육원 |
| 일시 | 매주(화) 주간: 10시 야간: 19시 |
| 연락처 | 062)520-4243 |
| 장소 | 전남대 평생교육원 |
| 일시 | 매주(수, 목) 주간반: 15시 야간반: 19시 |
| 연락처 | 062)530-3873~5 |

강의료 12만~18만(4월개월 강의료)

특전: 공인발령관리사, 부동산경매분석사, 권리분석사 자격취득 토크 책임지도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충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금호지점 | 팀장 010-4948-2882
 풍암지점 | 팀장 010-3642-6142
 공동본점 | 팀장 010-3603-7981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1 연수일정(2013년 제11기)

- 개강일시: 2013. 9. 2(월) 기초오후 14:00 기초아간 18:30 심화오후 14:00 심화아간 18:30
- 개강장소: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3. 8. 1(목) ~ 2013. 8. 31(토)
- 수업기간: 2013. 9. 2(월) ~ 2013. 12. 20(금) (총 90시간)
- 수강료: ₩360,000

● 모집인원: 기초오후반: 30명 기초아간반: 30명
 심화오후반: 30명 심화아간반: 30명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하고, 기초반 수료증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심화반 편입 가능

●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반: 14:00~17:00 야간반: 18:30~21: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기초, 심화) 연수과정 수료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 (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공인 기민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 일 공휴일 휴무)

- 전화 (062) 530-3873~3876
- 담당교수: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sle.jne.go.kr>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니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식섭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3 (주)유니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환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